

##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욥기 14:14*

욥이 던진 이 강렬한 질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주제는 없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인류의 예견이 닿는 한 죽음은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은 바로 사후에 생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역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위대한 적인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달래고 비극적으로도 너무나 현실적인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철학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즉 죽음이 인간이 더 숭고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며,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더 살아 있는 것인가? 수천 년 전, 의로운 사람 욥은 서두의 구절에 인용된 말을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한 수십억의 사람들을 대변했으며, 그들 자신도 온 인류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도래를 두려워해 왔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에 개인적이면서도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께 “나를 죽게 하소서( )”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욥기 14:13). 욥은 사는 것에 지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지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야고보서 5:11). 욥에게는 인내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의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가족 모두가 멸망했다. 그는 건강을 잃고 온몸을 뒤덮은 역겨운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아내마저 그를 배신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했다(욥기 2:9).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겨 주시며, 정해진 때를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14:13

이처럼 하나님께 죽게 해 달라고 간구한 욥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말은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가 사후 생명에 관한 질문을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음을 압니다.

욥이 “사람이 죽으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게 되는가?”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그가

천국에 갔다는 뜻인가, 아니면 고통의 장소로 갔다는 뜻인가?”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던진 질문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였습니다. 이로써 사후의 삶은 죽은 자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성경의 위대한 근본 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해진 날들을 다 기다리리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올 때까지.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욥기 14:14,15

## 부활의 소망

욥이 가졌던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신약성경에 그토록 명확하고 위로가 되는 확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왔느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21). 이 본문에서, 완전한 “사람” 아담은 신성한 율법을

어기고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죽음의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 아담의 후손들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기록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로마서 6:23

## 왜 혼란이 생기는가?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혼란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7). 그 후 사탄은 뱀을 통해 이브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브는 불순종할 경우 죽음이 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하여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1-3

그러자 사탄이 하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창세기 3:4). 이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사실상 사탄은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셈이었다.

아마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사형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곧 그러한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으니, 인류가 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간을 도구로 삼아, 죽음이 겉보이는 것과 다르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가 사람들을 이 말을 믿게 할 수 있는 한, 그는 이브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진실을 말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너희는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며,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44). 다시 말해, 사탄은 최초의 거짓말을 낳았으며, 그것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이 허위는 모든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진리를 타락시켰으며, 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진리는 비교적 소수만이 믿어 왔다.

## “별개의 존재”라는 거짓

인간의 육체가 죽어 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었다. 사탄은 이 점에 관해서는 사람들을 속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유기체 안에 육체와 분리된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이 죽을 때 육체를 벗어나 계속 살아간다는 개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부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고수했다. 이는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사도들이 잠들고 난 후, 이 사상은 이교도 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교회에 유입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므로 죽음은 없다는 이 이론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다.

성경은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가 진리로 이 오류를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에게도 닥치나니, 그들에게 닥치는 일은 하나뿐이라. 이쪽이 죽으면 저쪽도 죽고, 참으로 그들은 모두 한 숨을 쉬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나니, 다 흠에서 나왔고 다 다시 흠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 3:19-21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사람과 짐승이 같으며, 그들이 모두 한 숨, 즉 전도서 3:21에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된 대로 “영”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이렇게 진리를 제시한 후, 그는 “누가 알겠는가[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죽음은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육체는 죽지만 ‘영’은 ‘위로’ 올라가 계속 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에 있어 사람과 짐승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우월성은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부활을 통해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등 동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 “불멸의 영혼”은 성경적이지 않다

“불멸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은 육체가 죽을 때 인간 몸 안에 별개의 존재가 거하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쳐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살아 있는 영”이란 단순히 살아 있는 존재, 즉 생명체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생명의 숨결이 유기체, 즉 육체와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육체는 영이 아닙니다. 생명의 숨결도 영이 아닙니다. 신성한 능력을 통해 그 숨결이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이 둘의 결합이 “살아 있는 영”을 만들어 냅니다.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같은 숨을 쉰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대홍수로 멸망한 인간과 하등 동물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어 다니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 곧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창세기 7:21,22

동물들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숨”을 통해 살아가므로, 동물들 또한 “살아 있는 영혼”이다. 번역상의 불일치로 인해, 성경을 대충 읽는 독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그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을 내라 하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그 종류대로 나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에서 “생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가리킬 때 “살 있는 영”으로 번역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생물”과 “영”이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자들은 성경이 근거로 삼지 않는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를 확립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등 동물을 지칭할

때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간을 지칭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는다”라고 기록한 것도 당연합니다.

올바른 생각은 솔로몬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며 “그러면 티끌은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7). 이 본문에 제시된 단순한 진리는 “*영(spirit)*”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ruach)*”를 번역한 것으로, 단순히 “숨”을 의미하거나, 이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을 뜻한다.

이 본문은 사람이 죽을 때 의식 있는 존재가 몸에서 빠져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조금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위 본문에서 사용된 “*돌아간다*”는 말은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별개의 존재라면,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일시적으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육체를 차지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론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죽음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살아 있는 영혼 또는 존재에 관해 성경에 명시된 사실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육체와 숨이 각각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살아 있는 영혼, 즉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것이며,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에스겔 18장 4절은 간결하게 이렇게 선언한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 **“잠”으로 표현된 죽음**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고 표현한다.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하실 때 강조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сар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잠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요한복음 11:11-14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기본 교리 중 하나를 제시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동시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의 소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생명의 소멸은 영구적이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인류의 구속자이자 죽음으로부터의 구세주가 되실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속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6, 17; 디모데전서 2:3-6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그리스어: 상응하는 대가]”이자 “세상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육체”, 즉 인성을 내어주셨습니다(요한복음 6:51). 완전한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에게 내린 불순종과 사형 선고로 상쇄하기 위해 “생명은 생명으로” 즉, 완전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을 위한 “랜섬”, 즉 상응하는 대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1:23; 로마서 5:12-19; 히브리서 2:9). 이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선고된 형벌, 즉 사형 선고를 치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마련된 구속 덕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의 일시적인 생명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잠든 자들은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성경은 “살아 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거니와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전도서 9:5)라고 말한다. 잠든 자들은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 “잠든” 자들도 깨어날 수 있으며,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리라.” (요한복음 11:11). 죽음 속에서 잠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의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시편 30:5)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 **마르다를 위로하시다**

예수님과 벳다니아의 작은 가족—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특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다니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나사로의 병에

대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들에게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15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으로 다가오시자 나가서 맞이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부드럽게 타박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11:21). 마르다는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했고,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실 절호의 기회였으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큰 고통 속에 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흔히 말해지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 오빠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겉껍질인 육신을 벗어던진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나사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영혼”이 근처에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마르다야,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와서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은 온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3

마르다는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그녀의 오빠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 달라고 기도하실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압니다.” 요한복음 11:22,24

마르다는 모든 죽은 자의 대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때 라자로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귀를 기울였기에, 온 인류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마르다는 그 대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한 기간, 즉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이후로 다양한 시기, 즉 시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펼쳐질 신성한 계획의 마지막 시기, 곧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협력할 자들을 선별하고 준비시키신 예비의 시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5; 마태복음 6:10).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왕국 법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써 완성에 이를 것이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즉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때 그녀의 오빠와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예수께서 뜻하신 바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도 자신의 당면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녀에게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5, 26).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를 깨우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게 될 모든 사람과, 그때에 진심으로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 인류가 깨어날 것임을 마르다에게 확신시켜 주신 후, 그녀에게 “이 말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26, 27). 마르다는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질 것이며, 이것이 죽음 속에서 잠든 모든 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올바르게 이해했다. 그녀는 예수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 나사로의 부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한 후,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가자고 청했고,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이 슬픔과 큰 상실의 광경에 마음이 움직이시어, 다른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셨다. 요한복음 11:28-35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입구 앞에 놓인 돌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러자 마르다가 반대했다.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었지만, 이제는 의구심이 들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39). 예수님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신성한 능력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 주려 하셨던 것이다. 신성한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죽어 있었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생명은 되살아날 수 있다. 애초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되살리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열린 무덤 앞에 서서 적절한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43). 이 기록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기록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그가 영원한 고문( )의 심연에 갔다 그 고통에서 풀려났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문의 심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을 때, “죽었던 자”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인 나사로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덤의 수의에서 풀려난 나사로는 예전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시 만났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는 유령도, 망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고, 그의 가족은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 “놀라지 말라”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리라.” (요한복음 5:28, 29).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졌듯이, 모든 죽은 자들도 일반 부활의 때에 불러내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있어 두 가지 일반적인 부류를 언급하신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곧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24절에서 현 시대의 “믿는 자들”로 지칭됩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 이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생명”의 영원한 부활( )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깨어남이 세상의 천년 심판의 날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31; 베드로후서 3:8; 요한계시록 20:6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크리시스(krisis)”입니다. 지금 생명에 합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히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때쯤이면 온 인류의 일을 주관하게 될 그분의 의로운 왕국의 법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인간 생명의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때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23

현재 시대의 신자들 중,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자격이 입증된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2:7). 따라서 불멸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으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임. 예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들은, 심판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심판관으로도 섬길 것이다. 고린도전서 6:2; 요한계시록 3:21; 5:10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행복한 완결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초래된 죄와 죽음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긴 슬픔의 기간 동안 죽은 모든 사람은 깨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개별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은 이를 상징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세상은 견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시리라.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울려 퍼지게 하라.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즐거워 노래하리라. ...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시편 96:10-13). 참으로 사후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위대한 희망입니다.